14일 광주 에덴병원에서 일곱 번째 아이를 낳은 이삼덕(35·앞줄 가운데)씨가 갓 태어난 아이를 안고 주위 사람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일곱째 복덩이 태어났어요"

■ 담양 이삼덕씨 가족 화제

목공소 일 남편 "힘들어도 설거지는 내몫이죠"

"아이가 건강하게만 자랐으면 좋겠어요. 여덟번째 아이도 생긴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낳을 거에요."

'딩크(DINK, double income no kids, 자신들의 인생을 즐기기 위해 맞벌이하면서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족'이란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저출산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30대 산모가 일곱 번째 아이를 낳아 화제다. 특히 젊은 층의 이농으로 고령화가 심해 아이울음 소리를 좀처럼 듣기 어려운 농촌에 살면서 다복함을 과시해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주인공은 담양군 금성면에 사는 17년차 주부 이삼덕(35)씨. 14일 오전 11시46분 광주 에덴병원(원장 허 정)에서 4.02kg의 건강한 여아를 자연분만했다.

이날 오후 병원 3층 입원실에서 태어난 지 5시간이 채 안된 딸아이를 안은 이씨는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이씨와 아이를 번갈아 바라보던 남편 박용식(44)씨는 이내 이씨의 손을 꼭 잡아 주었다.

1993년 3월에 결혼한 이들 부부는 2~3년 터울로 아이를 가지면서 2006년 여섯째인 아들 병석(4)군을 낳은 후 이번에 태어난 막둥이까지 모두 3남4녀를 두게 됐다.

일곱 자녀 가운데 장녀 소정(15)양은 벌써 중학교 3학년이고, 둘째딸 소희(13)양은 중학교 1학년이다. 이 아이들 밑으로는 소현(11·초5)양, 병권(8·초2)군, 병규(5)군이 있다.

저녁이면 유치원·초·중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이 모여 앉아 큰 아이들이 작은 아이들 숙제를 도와주고, 작은 아이들은 큰 아이들에게 모르는 것을 물어보면서 우애를 다진다. 이들 가족은 마을에서 유명인사다. 담양군 금성면 대실마을에서 '아이 많은 집'을 물으면 모두 알고 있을 정도다.

목공소 일을 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남편 박씨는 일곱 명의 자녀를 둔 비결에 대해 "아내가 여섯 명의 아이들을 키우느라 힘들기 때문에 하루 세 끼의 식사와 설거지를 내가 책임지고 있다"며 활짝 웃었다.

에덴병원 측은 이씨에게 기저귀, 옷 등 육아용품과 출산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담양군은 셋째 이후 자녀부터 출산양육비 80만원과 생후 1년이 지난 후에는 육아용품비 100만원을 지원하며 체온계와 턱받이 등을 선물하고 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추석택배 반송" 전화사기 주의

우체국 사칭 개인정보 유출 잇따라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남궁 민)는 추석을 앞두고 우체국의 소포나 택배가 반송됐다고 속여 개인정보를 빼가는 전화사기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14일 밝혔다.

우체국콜센터(1588-1300)에 따르면 이달 들어 전화사기가 의심된다는 문의 전화가 하루 평균 60~70건에 달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일 "우체국택배가 반송됐다는 ARS전화를 받아 택배가 올 데가 없다고 하자 상대방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며 주민등록번호와 신용카드번호를 물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또 13일 하루 동안 "중앙우체국을 사칭해 소포가 계속 반송돼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라는 전화가 걸려왔다"며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문의가 10건 이상 접수됐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9월 하루 평균 접수된 전화사기 문의 건수가 300건에 달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줄었지만, 사기행각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최근에는 사기범들이 어눌한 조선족 말투를 쓰지 않아 구별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사기범들은 빼낸 개인정보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보이스 피싱 조직에 팔아넘기거나 금융사기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정사업본부는 추석을 앞두고 선물 배달 등을 미끼로 한 전화사기를 막기 위해 집배원들이 노인정과 마을회관 등을 방문해 사기수법과 피해 예방요령을 적극 알리는 등 보이스 피싱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학교재정 운용상태 내년부터 공개한다

급식비 등 보고서 발간

내년부터 일선 학교의 재정 운용상황이 학생 1인당 교육원가, 학부모 부담 비율, 급식비 등으로 나눠 세밀하게 공개된다.

또 올해부터 재정 관리가 미흡한 시도 교육청에 대해 심층 재정진단이 실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4일 지방재정법시행령 등에 근거해 시도 교육청과 일선 학교의 재정 운용상황을 매년 종합분석보고서 형태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과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내년 2월까지 학교재정 분석용 지표를 개발하고, 내년 9월 시도 교육청별로 관내 학교의 재정분석 보고서를 발간토록 할 계획이다.

중국 반달가슴곰 6마리 지리산 방사·증식 활용

토종 반달곰과 유전적으로 같은 반달가슴곰 6마리가 중국에서 들어와 이르면 다음달 지리산에 방사되거나 증식에 활용된다.

14일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공단 측은 중국산 반달가슴곰 중 4~5년생 암컷 2마리와 생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새끼 반달곰 4마리를 이달 말께 들여올 계획이다.

유전자 분석작업을 통해 중국산 반달곰 14마리가 토종 반달곰과 같은 아종(亞種)으로 판명 났으며, 공단 측은 이중 6마리를 국내로 도입한다.

지리산에는 모두 29마리의 반달곰이 방사됐으나 이중 자연적응에 실패해 회수되거나 폐사한 16마리를 제외한 13마리가 생존해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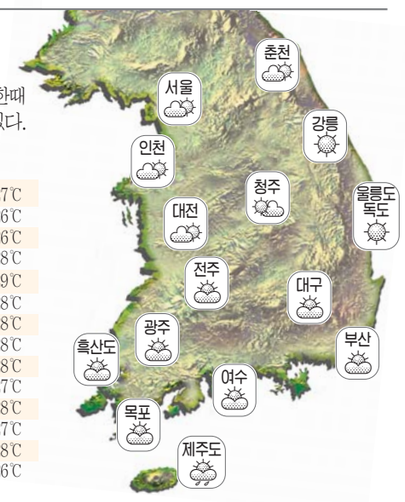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6시 15분 해짐 18시 40분 / 달뜸 13시 36분 달짐 23시 25분

일교차 커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광 주	구름많음	20/27℃
목 포	구름많음	21/26℃
여 수	구름많음	22/26℃
완 도	구름많음	19/28℃
구 례	오후 한때 비	19/29℃
해 남	구름많음	19/28℃
장 흥	구름많음	18/28℃
고 흥	구름많음	20/28℃
순 천	구름많음	20/28℃
영 광	구름많음	19/27℃
진 도	구름많음	18/28℃
전 주	구름많음	20/27℃
남 원	구름많음	19/28℃
흑산도	구름많음	20/26℃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	0.5~0.5m
먼바다	북동~동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1.5m
먼바다	북동~동	1.0~2.0m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불쾌지수
높음	경고	높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	0.5~0.5m
먼바다	북동~동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1.5m
먼바다	북동~동	1.0~2.0m

	밀물	썰물
목포	06:36 19:44	11:51 --:--
여수	00:48 14:39	07:09 21:12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6(목)	17(금)	18(토)	19(일)	20(월)	21(화)
날 씨						
최저/최고	19/28	19/29	20/28	21/27	20/28	21/28

검사접대 의혹 진정서 묵살 황희철 법무차관 조사 받아

황희철 법무차관이 검사 접대 의혹이 담긴 진정서를 받고도 묵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의 피내사자 신분으로 특별검사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준 특검보는 14일 수사상황 브리핑에서 "민경식 특검이 12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양재동 교육문화회관 회의실에서 황차관에 대한 조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